“사무량심으로 아이들 심성 변화를”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연화유치원장 명진 스님

지난 1월 3일 광주광역시 성도재일 연합법회에서 축하공연으로 나선 유치원생들의 전통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여느 아이돌그룹 못지않은 아름다운 군무는 법회에 참석한 어른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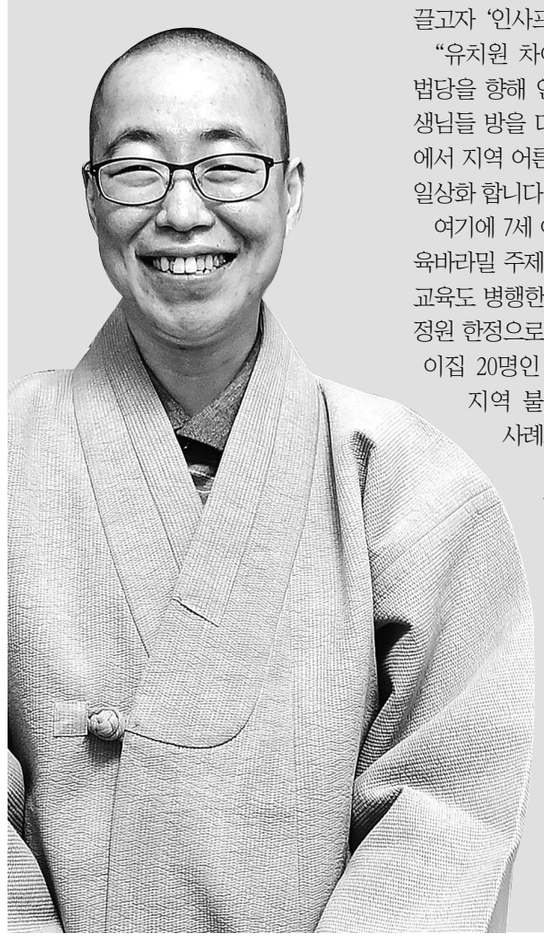
이날 전통부채춤과 사물놀이 등 공연을 선보인 단체는 광주 지산동 연화사에서 운영하는 연화유치원이다. 연화유치원은 광주고등법원과 조선대학교 사이에 있는 연화사 부설 유치원으로 1979년 개원했다. 이후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 깊은 유아교육시설이다.

원장 명진 스님〈사진〉은 제6대 원장으로 부임한 후 4년 동안 지역의 우수 유치원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집은 있으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없었어요. 4년간 모든 행정업무를 직접 익혀야 했습니다.”

스님의 말처럼 연화유치원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으나 명진 스님이 원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행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연화유치원이 있는 연화사는 주지 명신 스님의 원력으로 광주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는 비구니 사찰 중 하나다. 특이한 것은 유치원 설립을 먼저 한 후 사찰 창건을 진행할 정도로 유아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인근지역 유일한 유치원으로 2학급 80명으로 시작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면서 어려운 여건에 봉착했다. 이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지역불교가 급속히 퇴보하는 시절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명진 스님이 오면서 제2의 도약기가 시작됐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불교유치원이 어떻게 서양교육체계인 유아교육에 스며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후 역사와 전통문화를 도입, 불교의 다양한 형태를 교육하기 위해 ‘숲과 명상’을 중요한 주제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사찰에서 1박2일 캠프, 법당에서 보물찾기, 불교문화와 친해지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스님들은 숲과 명상, 다례에 대한 교육을 맡았다.

명진 스님은 이전부터 동국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불국사, 동국대 부속 유치원 등 어린이 포교만 10년간 진행한 베테랑이다. 이런 베테랑의 진면목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명진 스님은 전체 교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꾸고자 불교적 가치관인 사무량심(四無量心)을 갖고 교육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심성변화를 이끌고자 ‘인사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유치원 차에서 아이들이 내리면 법당을 향해 인사하고, 원장스님, 선생님들 방을 다니며 인사 나누기, 숲에서 지역 어른들에게 인사 나누기를 일상화 합니다.”

여기에 7세 아동들에게 방송활동과 육바라밀 주제로 철학놀이 등 특성화 교육도 병행한다. 관계기관의 학급과 정원 한정으로 현재 3학급 80명, 어린이집 20명인 연화유치원은 어느덧 지역 불교계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진행한 명진 스님에게 유아포교의 필요성을 물었다. 스님의 답은 명료했다.

“부처님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지요. 이미 어른 스님들이 집을 지었으니 살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베트남에 전한 감로수의 희망

전북 마하연불교승가회, 초등학교 식수대 설치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 지원을 위해 방문한 진성 스님이 학교 관계자들과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태고종 스님들의 승가공동체인 전북 마하연불교승가회(회장 승천, 정읍 일광사 주지)가 베트남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식수대와 최고 사양의 정수기를 설치한다.

마하연승가회 나눔봉사단 상임이사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은 1월 13일 베트남 호치민 구찌구 탄 텅호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웬방썬 교장,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수기 설치와 식수대 공사 협약을 체결하고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전북 마하연승가회는 탄 텅호이 초등학교에 한국산 정수기 6대를 설치하고, 10평 규모의 식수대를 건립하게 된다. 식수대는 탄 텅호이 초등학교 급식소와 교실 사이에 새로 건축한다. 비용은 최고급 사양의 한국산 정수기 6대와 물탱크, 식수대 공사비를 포함해 약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 스님은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1991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이후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아름다운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어린이는 어느 나라나 미래의 희망이다”라며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감로수와 같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웬방썬 교장은 “멀고도 먼 이곳을 찾아준 한국 태고종 마하연승가회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설치한 정수기를 통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돼 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 “우리 학생들은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라의 재목으로 성장할 것이다.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를 위해 헌신하도록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하연승가회 나눔봉사단은 지난해에도 구찌구 탄 텅호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총 566명 중 150명의 불우학생을 선발, 필기도구, 가방 등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축율동 보급 나선 광주불교계

광주불교聯 율동강습회 사찰 100곳 방문 예정


1월 21일 광주불교회관서 열린 2017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

2017년 광주 봉축행사의 흥겨움을 더할 율동 보급이 시작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월 21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인 ‘2017년 빛고을관등회 율동강습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율동보급에 나섰다. 이날 강습회는 각 사찰과 단체의 연희단과 사찰 율동보급자, 빛고을관등회 율동리더 등 30여 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했다.

행사를 준비한 광주불교연합회 연희기획단(단장 일명, 신광사 주지)은 서울 연등회의 율동을 지원받아 △1등단 벗이어오라(감로사~법림사) △2등단 환희의 노래(법선사~증심사) △3등단 님이 오신 날(천룡암~화림정사) △전체율동 뱃노래 △어린이율동·연등만들기 △청년율동 This is Buddha’s Day 등을 확정하고 첫 율동보급을 시작했다.

일명 스님은 첫 연합 강습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빛고을관등회의 환희와 즐거움을 더할 봉축율동에 많은 신도들이 참여해 부처님의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각 사찰과 단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축율동을 보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희기획단은 향후 3개월 동안 보급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사찰과 단체는 중요한 법회시간을 이용해 강습회를 진행하며, 연희단은 연습시간을 배정해 보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8개였던 연희단에 청소년, 군부대 등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특히 봉축행사에 참여하는 100여 곳 사찰을 대상으로 방문강습회 진행과 함께 율동CD 배포, 사찰별 정월 방생법회 때 수송차량에서 봉축행사 영상 시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봉축행사의 중요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증현 스님(만경사 주지)은 “지난해 처음 어울림마당을 통해 율동을 시작했다. 행복해하는 신도들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웠다. 올해에도 봉축행사가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지역 봉축행사 율동은 광주불교연합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북구 자비암 설맞이 溫情 나눠

관내 100가정에 후원품 전달

광주 북구 자비암(주지 해련)은 1월 23일 설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 100가정에 100만원 상당 떡국과 김을 전달했다.

올해로 15년째 실시한 자비나눔 행사는 매년 12명의 신도로 구성된 봉사단을 조직, 두암3동사무소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세대에 전달해왔다.

자비암 주지 해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분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일은 결코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5년간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는 박철 회원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뜻 깊고 가슴 따뜻해지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우리사회가 좀 더 따뜻해졌으면 한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광사, 정읍시청에 자비의 쌀 1000kg

1월 19일, 연꽃봉사회원들과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와 일광사 신도들이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봉사회원들은 1월 19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김생기 시장에게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사진〉

승천 스님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의 고충이 늘어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은 쌀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설 명절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생기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정 나눔에 앞장서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온정이 꽁꽁 얼어붙은 시장경제를 녹이고, 시민 모두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일광사는 지난해에도 불자들과 함께 자비의 쌀을 정읍시청에 기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애 Ballohae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쟈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